

MG 타점 사례 모음집

실계좌 기록으로 전하는 진입과 청산의 기준

몽타 지음



목차

1부. 강사 사례

신호가 점등된 뒤에 들어간 매매 5건

01	BTC/USDT	4시간봉 · 숏 · 30배	+1,010.18 USDT	4
02	ETH/USDT	주봉 → 하위 · 숏 · 30배	+8,923.33 USDT	5
03	BTC/USDT	15분봉 · 숏 · 30배	+2,345.32 USDT	6
04	TRUMP/USDT	4시간봉 · 숏 · 4배	+29.09%	7
05	GRVT/USDT	15분봉 · 숏	+6,273.10 USDT	8

2부. 수강생 사례

에어본 점등과 캔들 확정을 확인하고 진입한 매매 5건

06	SIREN/USDT	15분봉 · 롱 · 10배	+99.07%	11
07	ZEC/USDT	5분봉 · 롱 · 20배	+70.09%	12
08	BTC/USDT	15분봉 · 숏 · 30배	+40.28%	13
09	NIGHT/USDT	15분봉 · 롱 · 10배	+21.12%	14
10	SOL/USDT	15분봉 · 숏 · 10배	+9.65%	15

각 사례는 한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단 표에 진입 조건이, 차트 아래에 진입 근거와 진입 판단, 익절 · 손절 기준, 복기와 체크 포인트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고 본인이라면 어디서 진입했는지 판단한 뒤 아래 내용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1부

강사 사례 신호가 점등된 뒤 들어간 매매

15분봉 단타부터 4시간봉 스윙까지, 밴드 이탈과 대기·에어본 점등이 겹치는 자리를
확인한 뒤 진입한 매매 5건입니다.

BTC/USDT

결과 **+1,010.18 USDT**

4H 에어본 대기 → 점등 확인 후 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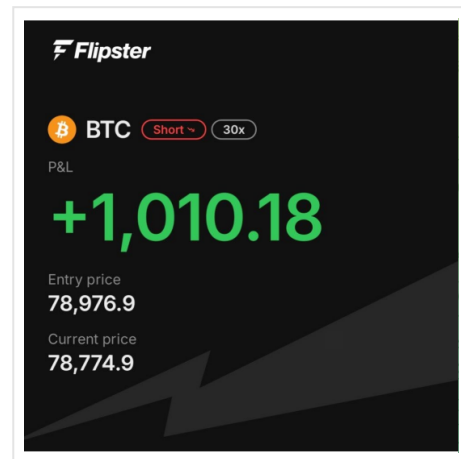
평가익 · 가격 -0.26%

시간봉 4시간봉	포지션 숏	레버리지 30배	진입가 78,976.9	목표가 78,774.9 보유 중 평가	손절가 ≈79,700 손절을 약 0.9%	손익비 2 : 1
--------------------	-----------------	--------------------	------------------------	-----------------------------------	-------------------------------------	---------------------

차트



체결 내역

**+1,010.18 USDT**

Flipster

BTC/USDT · 4시간봉 · 숏

진입 78,976.9 → 목표 78,774.9 / 손절 ≈79,700

진입 근거

4시간봉 차트에 대기 → 에어본이 순서대로 찍혀 있다. 이게 MG의 실행 구조 그 자체다. 가격이 상위 밴드를 이탈하면 먼저 "대기" 상태로 들어가고, 되돌림 방향이 캔들로 확정되는 순간에 비로소 "에어본"이 점등된다. 차트에는 앞선 구간에서 이미 한 번 대기 → 에어본 사이클이 완성되어 있었고, 82,000대에서 두 번째 에어본이 점등되며 매수세 소진이 확인되었다. 볼륨도 34.46K로 실려 있었다.

진입 판단

대기 표시가 떴을 때 들어가지 않았다. 대기는 "조건이 갖춰졌다"는 뜻이지 "지금 들어가라"는 뜻이 아니다. 에어본이 점등되고 방향이 확정된 뒤 78,976.9에서 숏으로 대응했다.

익절 / 손절 기준

밴드 중단 방향 회귀를 목표로 잡고, 손절은 에어본 신호 캔들 고점 위로 종가 안착할 경우로 설정했다. 4시간봉 타점이므로 15분·5분 타점보다 손절 여유를 넓게 두되, 신호가 부정되면 즉시 나오는 구조는 동일하다.

복기

"자고 일어나니 양전했군요" — 진입 직후 바로 수익이 난 매매가 아니다. 한동안 마이너스였다가 시간이 지나며 플러스로 돌아섰다. 4시간봉 타점은 회귀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입가 근처에서 흔들리는 구간을 반드시 지나간다. 이때 손절선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포지션을 정리할 이유가 없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신호 캔들의 고점이라는 명확한 손절선이 있었기 때문에, 차트를 계속 볼 필요가 없었다. 손절선을 안 건드렸으면 기다린다 — 그게 전부다. 화면을 붙잡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구간에서 손이 나갔을 자리다.

체크 포인트

- 대기는 조건 충족, 에어본은 실행 신호 — 이 둘을 절대 혼동하지 않는다
- 4시간봉 타점은 회귀에 시간이 걸린다, 진입 직후 마이너스는 정상이다
- 손절선을 안 건드렸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대응이다

ETH/USDT

결과 **+8,923.33 USDT**

상위 프레임 확률 판단 기반 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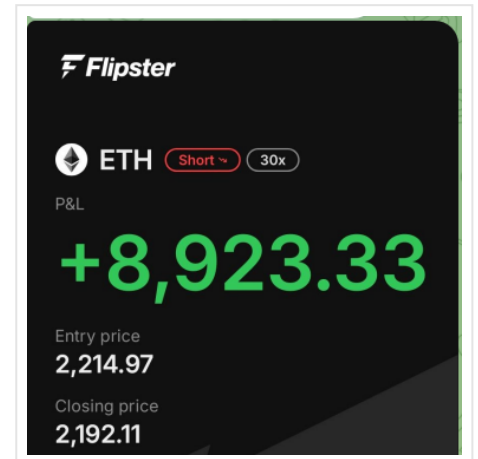
ROI 약 +31% · 가격 -1.03%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손익비
주봉 → 하위 방향/타점 분리	숏	30배	2,214.97	2,192.11	≈2,230 손절을 약 0.7%	1.5 : 1

차트



체결 내역

**+8,923.33 USDT**

Flipster

ETH/USDT · 주봉 → 하위 · 숏

진입 2,214.97 → 목표 2,192.11 / 손절 ≈2,230

진입 근거

장주기 봉 차트를 먼저 열어 위·아래 어느 쪽 확률이 높은지부터 계산했다. 판단은 “전자 30프로, 후자 70프로” — 어느 쪽이 확실하다가 아니라, 어느 쪽이 더 나올 법한가를 숫자로 정리한 것이다. 하락 쪽에 확률 우위가 있다고 보고 방향을 고정한 뒤, 하위 프레임에서 타점을 잡았다.

진입 판단

방향을 정한 뒤에도 아무 데서나 잡지 않았다. 상위 프레임이 가리키는 방향(숏)과 하위 프레임 타점이 맞아떨어지는 2,214.97에서만 진입했다. 결과는 “예상한대로” 흘렀다.

익절 / 손절 기준

되돌림 목표 구간인 2,192.11에서 정리하였다. 손절은 직전 고점 위 증가 안착으로 설정해 0.7% 안쪽으로 관리했다. 30배 레버리지에서 1.03%의 가격 이동으로 약 31%의 수익이 난 구조다.

복기

“확률은 과학입니다. 반복시행, 꾸준히 쌓아가면” — 이 매매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70:30이라는 것은 열 번 중 세 번은 틀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한 번의 결과에 의미를 두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반복해서 시행한다. MG가 방법론이 아니라 시스템인 이유가 여기 있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맞힐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확률이 유리한 자리를 반복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진입 후 심리적 동요가 없었다. 틀려도 손절폭이 정해져 있고, 맞으면 손절폭의 몇 배가 들어온다 — 그 구조를 계속 돌리는 것뿐이다.

체크 포인트

- 방향은 상위 프레임에서, 타점은 하위 프레임에서 —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 70:30이라는 건 세 번은 틀린다는 뜻이다, 한 번의 결과로 기준을 바꾸지 않는다
- 확률 우위가 있는 자리를 반복 시행하는 것이 수익의 실체다

BTC/US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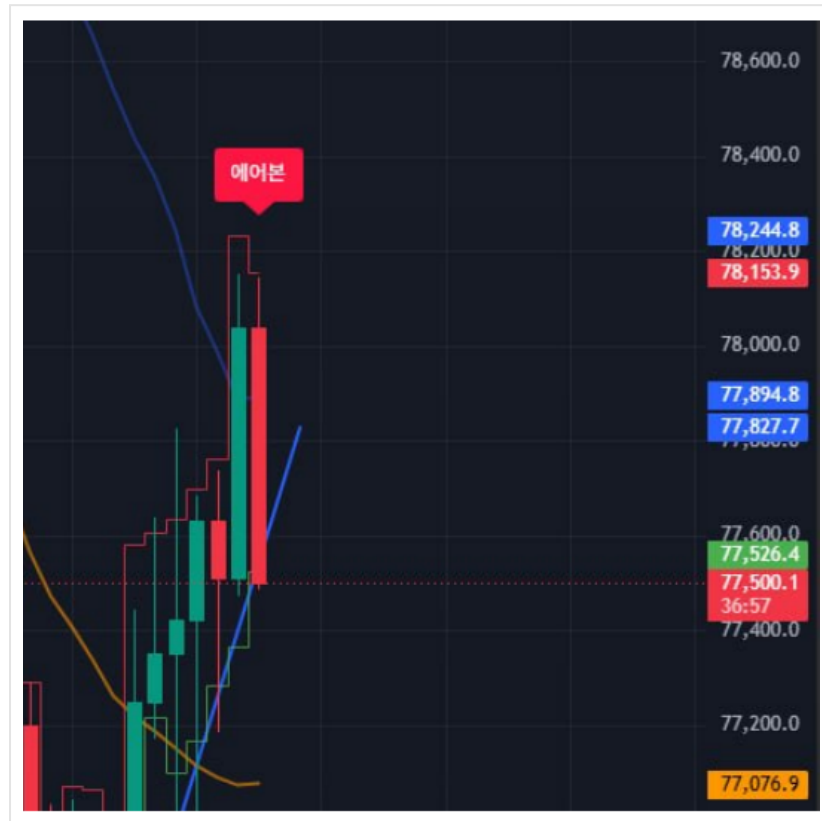
결과 **+2,345.32 USDT**

수평 지지 이탈 돌파매매 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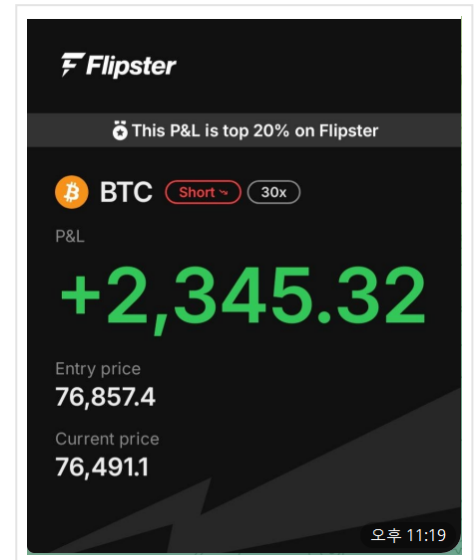
가격 -0.48%

시간봉 15분봉	포지션 숏	레버리지 30배	진입가 76,857.4	목표가 76,491.1	손절가 ≈77,130 손절을 약 0.35%	손익비 1.4 : 1
--------------------	-----------------	--------------------	------------------------	------------------------	--------------------------------------	-----------------------

차트



체결 내역

**+2,345.32 USDT**

Flipster

BTC/USDT · 15분봉 · 숏

진입 76,857.4 → 목표 76,491.1 / 손절 ≈77,130

진입 근거

가격이 오래 지켜지던 수평 지지 라인에 반복적으로 부딪히며 아래로 눌리는 흐름이 나왔다. “수평 갯 것 같네요”라는 판단이 먼저 서 있었고, 밴드 회귀형 타점이 아니라 이탈 방향으로 따라붙는 돌파 매매로 접근했다.

진입 판단

지지선 위에서 미리 숏을 잡지 않고, 이탈 흐름이 만들어지는 76,857.4에서 대응했다. 회귀 매매와 돌파 매매는 논리가 반대이므로, 진입 전에 “지금은 어느 쪽 매매인가”를 먼저 확인한 뒤 들어갔다.

익절 / 손절 기준

이탈 후 다음 지지 구간을 목표로 76,491.1에서 정리. 손절은 이탈한 수평을 다시 회복해 증가 안착할 경우로 설정했다.

복기

회귀 매매만 하는 게 MG가 아니다. 밴드 밖에서 오래 눌러 있는 구간은 회귀가 아니라 확장으로 이어지고, 그때는 방향을 따라가는 게 맞다. 다만 손익비가 1.4:1로 낮았던 만큼, 이런 자리는 목표를 짧게 확정하는 게 정답이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이탈이 임박했다는 판단이 서 있어도 실행은 이탈이 시작된 뒤에 했다. 예측과 집행 사이에 한 캔들을 두는 습관이 손실을 줄인다.

체크 포인트

- 진입 전에 “회귀 매매인가, 돌파 매매인가”를 먼저 확인한다
- 돌파 매매는 손익비가 낮으므로 목표를 짧게, 확정적으로 가져간다
- 이탈한 라인의 회복 증가가 손절 기준이다

TRUMP/USDT

결과 **+29.09%**

4H 밴드 극단 이탈 + MG 캔들패턴 공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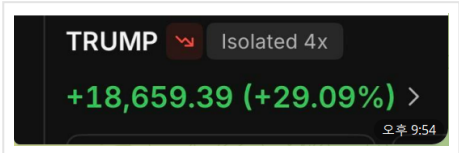
+18,659.39 USDT

시간봉 4시간봉	포지션 숏	레버리지 4배	진입가 약 2.67 4H BB 상단 2.724	목표가 2.475	손절가 ≈2.80 손절률 약 2.5%	손익비 1.5 : 1
--------------------	-----------------	-------------------	--	---------------------	-----------------------------------	-----------------------

차트



체결 내역



+29.09%

Bybit

TRUMP/USDT · 4시간봉 · 숏

진입 약 2.67 → 목표 2.475 / 손절 ≈2.80

진입 근거

4시간봉 볼린저 밴드가 상단 2.724, 중단 1.873, 하단 1.022였는데 가격이 3.679까지 치솟았다. 밴드 상단을 40% 이상 벗어난, 정상적인 추세로는 설명이 안 되는 비이성적 급등이었다. MG는 정확히 이 지점을 먹는 방법이다 — 시장이 이성을 잃은 구간에서, 평균으로 돌아오는 힘에 베팅한다.

진입 판단

급등 중간에 역추세로 던지지 않았다. 상단 이탈 후 상승 동력이 꺾이며 MG 캔들패턴(공매도 타점)이 확정된 뒤 바로 숏으로 집행했다. “MG캔패로 공매도 타점 나와서 그냥 바로”라는 표현 그대로, 신호가 뜨면 망설임 없이 실행하는 구조다.

익절 / 손절 기준

1차 목표는 밴드 상단(2.724) 안쪽 복귀, 실제로는 2.475까지 밀리며 상단 아래로 완전히 들어왔다. 손절은 직전 고점 방향으로 재돌파할 경우로 설정하고, 레버리지를 4배로 낮춰 변동성을 흡수할 여유를 확보했다.

복기

비이성적으로 급등한 페어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근거가 아무리 좋아도 고배율로 들어가면 손절선에 먼저 닿는다. 4배로 낮춰 잡은 것이 이 매매를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실질적인 이유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냉정하기만 하면 트럼프 같은 게 벌기 쉬운 페어” — 급등에 휩쓸려 룬으로 따라붙는 심리를 이겨내면, 오히려 이런 페어가 가장 명확한 타점을 준다. 감정이 아니라 밴드와 캔들이라는 기준으로만 판단했다.

체크 포인트

- 밴드 상단을 극단적으로 벗어난 급등이 MG의 최고 자리다
- 급등 중이 아니라 캔들패턴 확정 후에 들어간다
- 변동성이 큰 페어일수록 레버리지를 낮춰야 손절선에 먼저 닿지 않는다

GRVT/USDT

결과 **+6,273.10 USDT**

15분 BB 상단 이탈 후 하단 회귀 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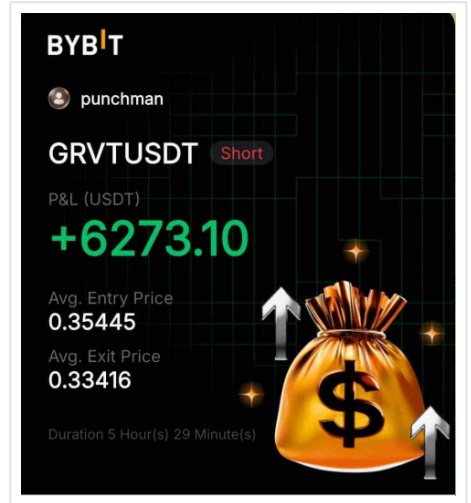
보유 5시간 29분 · 가격 -5.72%

시간봉 15분봉	포지션 숏	레버리지 미표기	진입가 0.35445 평단	목표가 0.33416	손절가 ≈0.3592 손절을 약 1.3%	손익비 4.3 : 1
--------------------	-----------------	--------------------	-----------------------------	-----------------------	-------------------------------------	-----------------------

차트



체결 내역

**+6,273.10 USDT**

Bybit

GRVT/USDT · 15분봉 · 숏

진입 0.35445 → 목표 0.33416 / 손절 ≈0.3592

진입 근거

차트에 하락 에어본이 연속으로 두 번 점등되었다. 15분 BB 상단이 0.34984, 하단이 0.33153이었는데 진입가 0.35445는 상단을 완전히 벗어난 자리다. 밴드 밖으로 나간 가격이 첫 신호에서 돌아오지 않고 한 번 더 밀어 올린 뒤 두 번째 신호가 뜬 구조 — 매수세가 두 번 소진되었다는 뜻이다.

진입 판단

첫 에어본에서 전량을 신지 않고, 신호가 반복 확인되는 구간에서 평단 0.35445를 만들었다. 밴드 상단 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손절선까지의 거리가 짧았고, 목표인 하단까지의 공간은 넓었다.

익절 / 손절 기준

밴드 하단(0.33153) 부근을 목표로 잡고 0.33416에서 정리하였다. 손절은 에어본 신호 캔들의 고점 위로 종가 안착할 경우로 설정했다. 상단에서 잡아 하단에서 푸는, MG의 가장 기본형 구조다.

복기

자기 전에 신호 보고 걸어두고 5시간 29분 뒤에 정리한 매매다. 타점 자체가 명확하면 화면 앞에 붙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밴드 상단 이탈 → 하단 회귀라는 회귀 폭 전체를 그대로 먹었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숏만 치면 돈복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흐름이 일방적이었지만, 흐름이 좋을 때일수록 기준 밖 자리는 건드리지 않았다. 신호가 뜬 자리에서만, 신호가 정한 손절선으로만 대응했다.

체크 포인트

- 상단 이탈 → 하단 회귀가 MG의 기본 회귀 폭이다
- 에어본이 연속 점등되면 매수세 소진이 두 번 확인된 것 — 신뢰도가 올라간다
- 타점이 명확하면 5시간 방치해도 결과는 기준이 만든다

바이낸스 전세계 상위 0.01%

20대 누적 수익 140억 번

MT 단타&스윙 매매법

정규강의 - 9월 28일(월) 저녁 7시 30분

몽타

20대 140억 트레이더

<<20대 누적 수익 140억 번 MT 단타&스윙 매매법
정규강의 안내 (~9월 29일 신청 마감)>>

정규강의 · 9월 28일(월) 저녁 7시 30분

몽타 · 20대 140억 트레이더

여기까지 열 건을 보셨다면, 한 가지가 눈에 걸리셨을 겁니다.

종목도, 시간봉도, 배율도 전부 달랐는데 **들어간 이유는 열 번 다 똑같았다는 것.**

MG는 맞는 매매법이 아닙니다.

대기가 뜨면 기다리고, 에어본이 뜨면 들어가고, 손절선을 안 건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게 없으니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 중에도, 자는 동안에도 결과가 나옵니다.

화면을 붙잡고 있어야만 버는 매매법이었다면 이 10건은 애초에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MG 타점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몽타 커리큘럼에서 MG 심화 + TF 스윙 + RX 매매법까지 배운다면?

자리는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2기 자리는 한정돼 있고, 다음 기수는 한참 뒤 혹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에서 → 신호로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만 지금 바로 넘어오세요!

당장 알아보기 (얼리버드 선착순 마감)

<https://www.blockcampus.co.kr/classes/300229>

* 얼리버드가 종료되면 별도의 공지없이 가격이 인상됩니다.

* 피드백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강사님의 개인 사정에 따라 다음 기수부터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2부

수강생 사례 신호와 캔들을 함께 확인한 매매

에어본 점등에 캔들 확정을 한 단계 더 얹고, 손절폭을 1% 안팎으로 고정해
손익비를 크게 가져간 매매 5건입니다.

SIREN/US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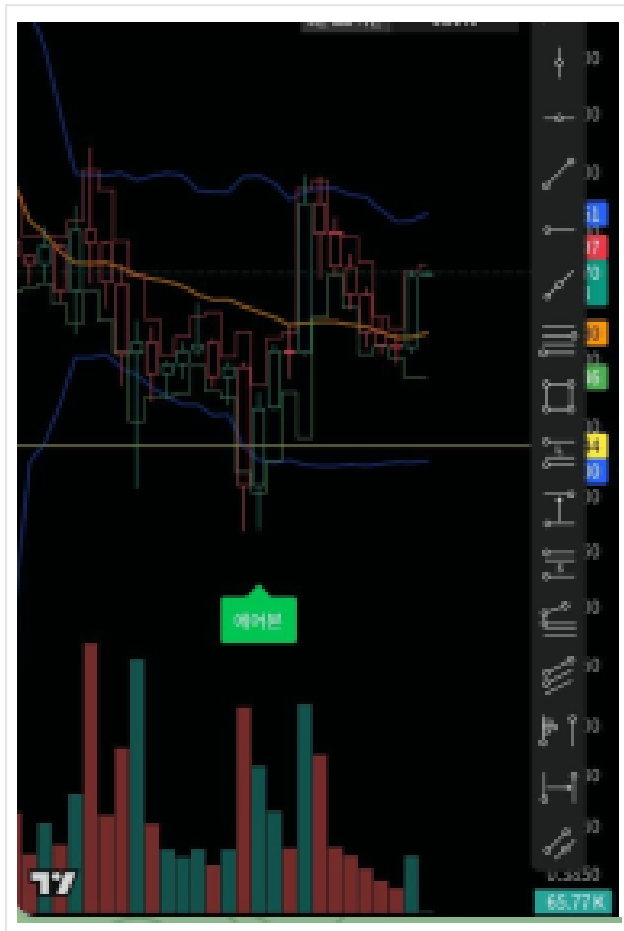
결과 **+99.07%**

상승 에어본 점등 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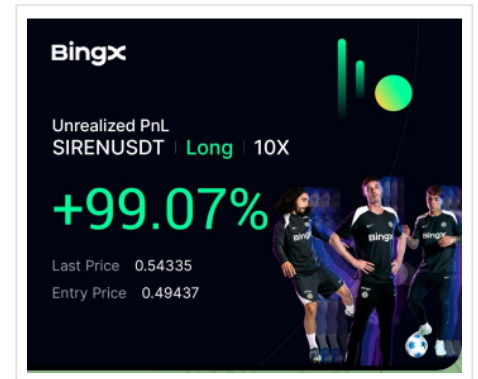
가격 +9.91%

시간봉 15분봉	포지션 롱	레버리지 10배	진입가 0.49437	목표가 0.54335	손절가 ≈0.4889 손절을 약 1.1%	손익비 9:1
--------------------	-----------------	--------------------	-----------------------	-----------------------	-------------------------------------	-------------------

차트



체결 내역

**+99.07%**

BingX

SIREN/USDT · 15분봉 · 롱

진입 0.49437 → 목표 0.54335 / 손절 ≈0.4889

진입 근거

하락으로 밴드 하단을 크게 이탈한 뒤 상승 에어본이 점등되었다. 하단 이탈 상태에서 매도세가 소진되고 반전 캔들이 확정되는 순간이었고, 회귀 목표까지의 공간이 크게 열려 있는 자리였다.

진입 판단

떨어지는 중에 “이제 바닥이겠지” 하고 잡지 않았다. 에어본이 점등된 뒤 0.49437에서 롱으로 대응했다. 신호가 없었으면 손이 안 나갔을 자리다.

익절 / 손절 기준

밴드 중단~상단 방향 회귀를 목표로 잡고 0.54335까지 끌고 갔다. 손절은 신호 캔들 저점 아래로 잡아 1.1% 안쪽으로 관리했다.

복기

손절폭 1.1%에 수익폭 9.9%. 손익비가 9:1까지 나온 이유는 예측이 아니라 신호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하락 중간에 잡았다면 같은 방향이어도 손절폭이 3~4배로 벌어졌을 자리다. MG 단타와 RS를 같이 쓰면서 방향 근거를 이중으로 확보한 것도 주효했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신호가 뜬 자리에서만 들어간다는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진입 후 잠깐의 흔들림에 손이 나가지 않았다.

체크 포인트

- 하단 이탈 후 상승 에어본은 손익비가 가장 크게 나오는 자리다
- 떨어지는 칼날은 신호가 뜬 다음에 잡는다
- 신호 캔들의 저점이 손절선 — 그 밖에서 잡으면 손익비가 무너진다

ZEC/US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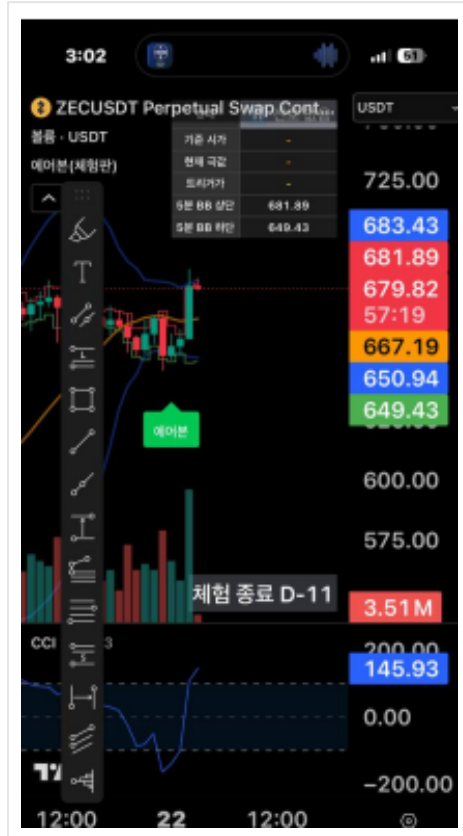
결과 **+70.09%**

5분 BB 하단 이탈 후 캔들 확정 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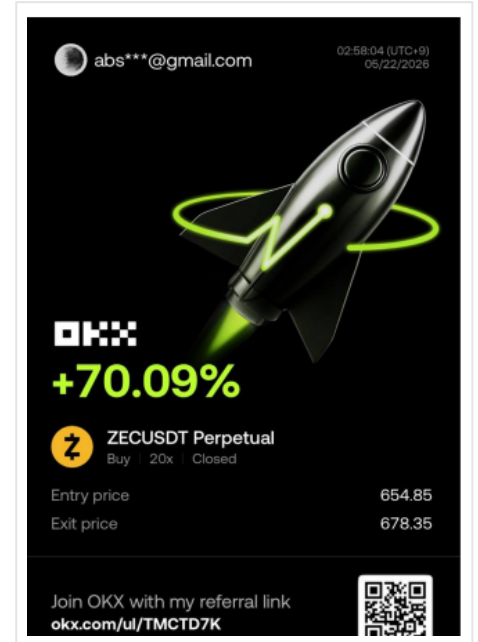
가격 +3.59%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손익비
5분봉 15분 참고	롱	20배	654.85	678.35	≈649.4 손절을 약 0.85%	4.2 : 1

차트



체결 내역

**+70.09%**

OKX

ZEC/USDT · 5분봉 · 롱

진입 654.85 → 목표 678.35 / 손절 ≈649.4

진입 근거

5분 BB 상단이 681.89, 하단이 649.43인 구간에서 가격이 하단까지 밀렸다. 하단 부근에서 매도세가 멈추고 CCI도 저점을 다지며 반등 조건이 갖춰졌고, 이 상태에서 상승 에어본이 점등되었다.

진입 판단

에어본 시그널만 보고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 신호 확인 후 의미 있는 캔들 패턴이 나오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654.85에서 진입했다. 이 한 단계를 추가하고 나서 승률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

익절 / 손절 기준

5분 BB 상단(681.89) 부근을 목표로 잡고 678.35에서 정리. 손절은 하단 아래 증가 마감으로 설정했다.

복기

야간 근무 중에 잡은 매매다. 하단 → 상단 회귀 폭 전체를 거의 그대로 먹었고, 20배 레버리지에서도 손절폭이 0.85%로 관리되었다. “신호 → 캔들 확정 → 진입”이라는 2단 필터가 승률을 만든 사례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신호가 났다고 반사적으로 누르지 않고, 캔들이 뒷받침해주는지 한 박자 기다리는 습관이 붙었다. 그 한 박자가 승률 차이를 만든다.

체크 포인트

- 에어본 점등 → 캔들 패턴 확정 → 진입, 이 순서를 절대 뒤집지 않는다
- 하단 진입의 목표는 상단, 목표 가격은 진입 전에 이미 화면에 떠 있다
- 근무 중이라도 기준이 명확하면 타점은 놓치지 않는다

BTC/USDT

결과 **+40.28%**

15분 BB 상단 태그 후 하단 회귀 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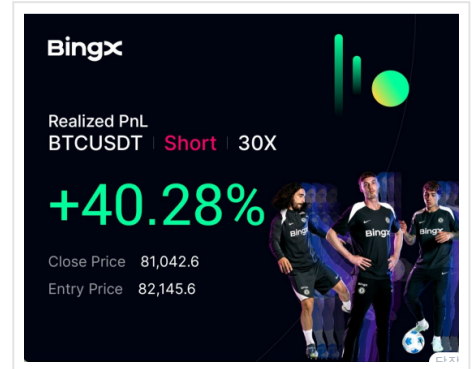
가격 -1.34%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손익비
15분봉	숏	30배	82,145.6	81,042.6	≈82,400 손절을 약 0.31%	4.3 : 1

차트



체결 내역

**+40.28%**

BingX

BTC/USDT · 15분봉 · 숏

진입 82,145.6 → 목표 81,042.6 / 손절 ≈82,400

진입 근거

15분 BB 상단이 82,196.6, 하단이 80,858.5인 구간에서 가격이 상단을 태그했다. 슬금슬금 올리며 숏 포지션을 털어내는 전형적인 흐름이었고, 상단 부근에서 하락 에어본이 점등되며 매수세 소진이 확인되었다.

진입 판단

올라가는 동안 참았다가, 상단에서 신호가 뜬 82,145.6에서 숏으로 대응했다. 올리는 구간에서 미리 던졌다면 손절만 몇 번 맞고 끝났을 흐름이다.

익절 / 손절 기준

15분 BB 하단(80,858.5) 방향 회귀를 목표로 81,042.6에서 정리. 손절은 상단 위 증가 안착으로 설정해 0.31%까지 좁혔다.

복기

“비트 슬금슬금 올리면서 숏 죽일 때, 진짜 내려가는 것만 잡아버리는” 흐름이다. 올리는 구간 전체를 무시하고 상단에서 신호가 뜰 때까지 기다린 것이 전부다. 손절폭 0.31%에 30배 레버리지가 가능했던 것도 자리가 정확했기 때문이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계속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근거 없이 던지지 않았다.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전략이라는 걸 몸으로 확인한 매매다.

체크 포인트

- 상단 태그 + 하락 에어본이 겹치는 자리만 친다
- 상승 구간에서 미리 던지는 숏이 계좌를 녹인다
- 자리가 정확하면 손절폭이 좁아지고, 손절폭이 좁으면 배율을 올릴 수 있다

NIGHT/US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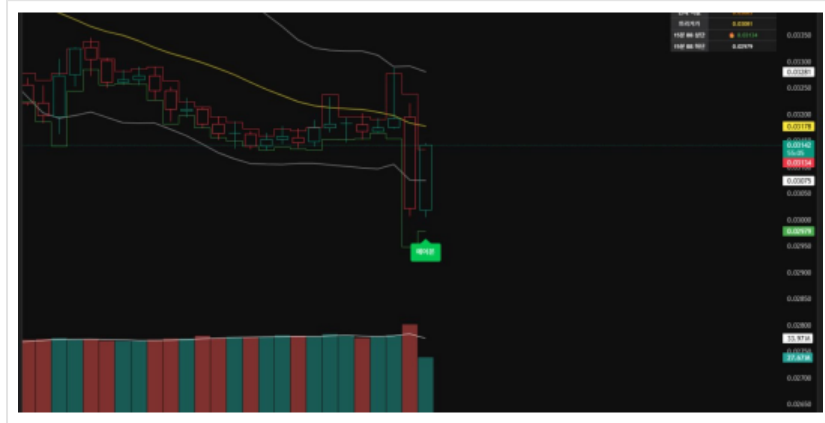
결과 **+21.12%**

급락 후 하단 이탈 상승 에어본 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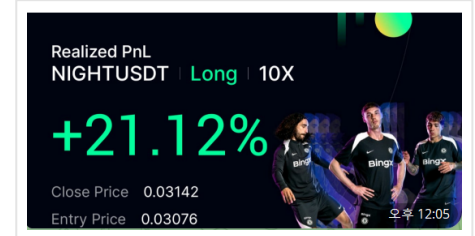
가격 +2.15%

시간봉 15분봉	포지션 롱	레버리지 10배	진입가 0.03076	목표가 0.03142	손절가 ≈0.03054 손절률 약 0.7%	손익비 3 : 1
--------------------	-----------------	--------------------	-----------------------	-----------------------	--------------------------------------	---------------------

차트



체결 내역

**+21.12%**

BingX

NIGHT/USDT · 15분봉 · 롱

진입 0.03076 → 목표 0.03142 / 손절 ≈0.03054

진입 근거

지속적인 하락 끝에 마지막 급락 캔들이 나오며 밴드 하단을 크게 이탈했다. 추세를 거스르는 자리처럼 보이지만, MG에서는 이 “이탈 직후 소진 구간”이 가장 명확한 회귀 타점이다. 하단 이탈 상태에서 상승 에어본이 점등되었다.

진입 판단

하락 추세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신호가 뜬 0.03076에서만 롱으로 대응했다. 추세 역방향 진입이므로 목표는 밴드 중단까지로 짧게 잡았다.

익절 / 손절 기준

밴드 중단 방향 회귀를 목표로 0.03142에서 정리. 손절은 신호 캔들 저점 아래로 설정했다. 역방향 진입인 만큼 목표를 욕심내지 않고 짧게 확정한 것이 정답이었다.

복기

“샘 셋팅하신 에어본이면 수익 무제한이겠는데요”라는 반응이 나온 매매지만, 실제로는 목표를 짧게 잡았기 때문에 성공한 자리다. 하락 추세 중의 반등은 회귀 폭까지만 먹고 나오는 게 원칙이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하락하는 종목을 롱으로 잡는 것은 심리적으로 가장 어렵다. 신호라는 객관적 기준이 있었기에 실행할 수 있었다.

체크 포인트

- 하락 추세 중 하단 이탈 + 상승 에어본 = 회귀 타점
- 역방향 진입은 목표를 중단까지만, 짧게 확정한다
- 신호가 없는 하락 구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SOL/USDT

결과 **+9.65%**

에어본 숏 후 반익 → 완익 분할 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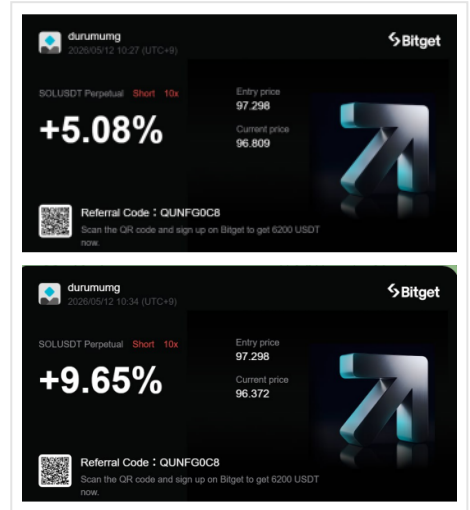
완익 · 총 소요 10분 · 가격 -0.95%

시간봉	포지션	레버리지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손익비
15분봉	숏	10배	97.298	96.809 / 96.372 1차 절반 · 2차 완익	≈97.88 손절을 약 0.6%	1.6 : 1

차트



체결 내역

**+9.65%**

Bitget

SOL/USDT · 15분봉 · 숏

진입 97.298 → 1차 96.809 / 2차 96.372 · 손절 ≈97.88

진입 근거

오전 장에서 SOL이 밴드 상단을 이탈한 뒤 하락 에어본이 점등되었다. 상승 각도가 급했던 만큼 되돌림 폭도 클 것으로 보고 숏으로 접근했다.

진입 판단

97.298에서 진입. 오전 10:27 시점에 +5.08% 상태였고, 여기서 전량을 탈지 않았다.

익절 / 손절 기준

“적당히 반익 챙기고 나머지는 흐름에 맡긴다” — 1차로 절반을 96.809에서 확정하고, 나머지는 회귀가 이어지는 흐름에 맡겼다. 결과적으로 10:37에 96.372에서 완익, 최종 +9.65%로 마무리되었다. 진입부터 완익까지 10분.

복기

반익 시점에 전량 청산했다면 5.08%로 끝났을 매매다. 절반을 확정해 심리적 부담을 없앴 뒤 나머지를 흐름에 맡겨 수익을 두 배로 키웠다. 분할 청산의 효과가 숫자로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매매 당시 판단 & 심리

1차 익절로 원금 리스크가 사라진 뒤에는 남은 물량을 편하게 볼 수 있었다. 전량을 들고 있었다면 5%대에서 손이 나갔을 것이다.

체크 포인트

- 반익으로 리스크를 지우면 나머지 물량을 끝까지 볼 수 있다
- MG 타점은 회귀 폭이 짧다 — 10분 안에 끝나는 매매가 정상이다
- 1차 익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판단할 일이 없어진다



바이낸스 전세계 상위 0.01%

20대 누적 수익 140억 번

MT 단타&스윙 매매법

정규강의 - 9월 28일(월) 저녁 7시 30분

몽타
20대 140억 트레이더

<<20대 누적 수익 140억 번 MT 단타&스윙 매매법
정규강의 안내 (~9월 29일 신청 마감)>>

정규강의 · 9월 28일(월) 저녁 7시 30분

몽타 · 20대 140억 트레이더

여기까지 열 건을 보셨다면, 한 가지가 눈에 걸리셨을 겁니다.

종목도, 시간봉도, 배율도 전부 달랐는데 **들어간 이유는 열 번 다 똑같았다는 것.**

MG는 맞는 매매법이 아닙니다.

대기가 뜨면 기다리고, 에어본이 뜨면 들어가고, 손절선을 안 건드리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판단할 게 없으니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무 중에도, 자는 동안에도 결과가 나옵니다.

화면을 붙잡고 있어야만 버는 매매법이었다면 이 10건은 애초에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MG 타점 하나만으로도 이 정도인데,

몽타 커리큘럼에서 MG 심화 + TF 스윙 + RX 매매법까지 배운다면?

자리는 매일같이 쏟아집니다.

2기 자리는 한정돼 있고, 다음 기수는 한참 뒤 혹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측에서 → 신호로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분들만 지금 바로 넘어오세요!

당장 알아보기 (얼리버드 선착순 마감)

<https://www.blockcampus.co.kr/classes/300229>

* 얼리버드가 종료되면 별도의 공지없이 가격이 인상됩니다.

* 피드백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강사님의 개인 사정에 따라 다음 기수부터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